

## 대학교육의 위기와 교양교육



김 상 근  
영남대 총장

오늘날 동서양의 많은 지식인들과 사회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인문학, 혹은 인본정신의 위기에 대하여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물론 이 같은 우려는 과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정보와 기술공학은 우대되는 반면, 철학이나 문학과 같은 인문학의 가치가 하락하는 현상을 반영하는 것일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하면 현대의 인문학의 위기는 인문학적 정신을 배양시키는 바탕이 되는 교육의 부재, 특히 대학교육의 부실에 그 본질적인 원인이 있다고 하겠다. 원래 서구사회의 대학교육은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학문을 전수함으로써 규범 있는 교양인을 키우고자 하는 목적에서 시작되었다. 오늘날의 대학을 중세 유럽의 대학과 비교하기는 어렵겠지만 중세의 대학은 오늘날의 대학들이 역점을 두는 직업교육이나 학문교육과는 달리 주로 교양교육을 강조하였다. 그래서 대학의 중심 학문은 그야말로 교양으로서의 인본적·철학적인 인문과학이었으며, 대학은 인본적이고 철학적인 인간을 만들기 위해 교양교육을 시키는 곳이었다. 당시의 교양교육은 오늘날과 같은 단편적이고 실용적인 지식의 축적이라기보다는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세계와 역사의 이념에 대한 연구를 함으로써 인간과 우주에 대하여 본질적으로 사색하고, 그러한 사색을 통하여 삶에 대한 신념을 쌓고자 했으며, 이러한 사색과 신념을 통하여 인간이 당면하고 있던 현실을 지혜롭게 헤쳐나가고자 했다.

근대 산업사회로 접어들면서 인간의 삶의 양태가 다양해지고, 사회가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됨에 따라 대학은 직업교육을 강조하고 실용교육에 최대한 역점을 두게 되었고, 교양교육을 경시하게 되었다. 그래서 현대인은 자신의 전문 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한 전문적인 지식을 지니게 되었지만, 자신이 몸담고 있는 '우주'와 '세계'에 대해서는 명확한 이념과 신념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 같다. 인간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떠한 시대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어떠한 삶의 환경에서 어떻게 살아

가고 있는지를 알지 못한 채 자신의 전문적인 일에만 깊이 빠져 나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갈수록 심화되어가는 지식의 전문화 경향은 인간을 극단적으로 이기적이고 각박한 존재로 변모시키게 되었다. 종합적인 지식이 모자라면서 전문적인 지식만을 쌓게 된 전문가는 양산되었지만, 옛날처럼 종합적이고도 인문적인 지식을 쌓은 교양인은 찾기 어렵다. 현대 사회에서 나날이 증가되고 있는 온갖 비윤리적이고 부도덕한 범죄들과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행위들은 모두 인문교육 내지는 교양교육의 부재에서 기인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현대인들에게서 결여된 이 교양의 문제는 바로 대학에서의 교양교육의 부재로 인하여 생겨난 것이고, 오늘날 우리 대학이 안고 있는 위기의 핵심도 여기에 있다. 오늘날 우리의 대학이 양산하고 있는 지식인은 단편적이고 전문적인 사물의 구조나 의미에 대해서는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인간과 삶에 대한 본질적인 사유나 21세기라는 세계와 역사의 의미는 모르고 있다. 이 같은 지식인은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아무리 훌륭한 지식을 지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인간으로서의 인본적 정신과 교양이 없는 미개인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지금 우리 사회는 어느 때보다도 인문교육의 가치가 필요하고, 대학을 비롯한 각급 교육과정에서 인문적 가치의 중요성을 일깨워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격동의 20세기를 마감하고 21세기라는 문명사적 전환기에 서 있다. 21세기는 인간 사회의 다양한 삶과 연관된 환경과 물질문명의 총체적인 위기와 변화가 가히 혁명적으로 전개되는 시대가 될 것이라 예상된다. 아울러 21세기는 현재보다 더욱 냉엄한 국제경쟁의 시대가 전개될 것이며, 세계화·다원화로 특징지워지는 무한경쟁의 시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같은 예감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펼쳐지고 있는 경제위기의 상황이 웅변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앞으로 이같은 경쟁논리와 적자생존의 법칙은 전 지구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현대 사회는 과학기술의 법칙이 지배하는 실용적 가치와 전문적 지식만이 강조되어 우리들 주변에서 인간적인 사고나 정서, 감성적 상상력과 열정은 거의 사라져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인문적 정신과 교양교육이라 할 수 있다. 생각해 보면 그 동안 인류 문명사를 움직여 온 동력은 과학과 기술의 발전에 의한 것이라 생각되지만, 사실 그 바탕에는 언제나 인간과 세계를 향한 문화적 열망과 도덕적 정열, 즉 인문적 정신이 존재해 왔다. 대학과 대학인 모두가 변화하는 인간과 사회에 대한 인문적 정신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이 사회가 새롭게 요구하는 인문적 자질을 갖추는 데 결코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물론 오늘날과 같이 급변하는 삶의 환경 속에서는 교양교육에 대한 인식도 새로운 형태로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시대 변화에 걸맞게 부단히 새로운 인문학적 의제들을 생산하고, 새로운 문제들을 정의하며 새로운 이론들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인문학의 부활과 인문적 정신을 함양한다는 것이 단순히 인문적 복고주의에 머문다든가 맹목적 전통주의에 함몰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과거와 같은 전통적인 학제와 학교 교육만으로는 현대 사회에서 올바른 시민적 자질과 인간적 품성을 키우기는 부족할 것이다. 오늘날과 같은 고도의 정보사회 하에서 올바른 인간적 품성을 쌓고 훌륭한 사회적 일원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대학은 기술교육이나 직업교육 못지 않게 인문학적 가치나 교양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해야 하며, 이를 교육현장에서 올바르게 교육시켜야 한다. 21세기라는 급변하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대학을 교양교육의 터전으로 만드는 길이다. **국문**